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췌어 상담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2)470-3116

법공양 페이지

추석은 만물 공생작용에 감사하는 날

현대사회에서 추석의 의미

문 며칠 있으면 8월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추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단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기에 계승을 해서 지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이 길게 이어져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을 때에 농사짓는 사람 혼자서 쌀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나 태양을 내려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일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수를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팔월 추석은 만물이 공생하는 작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즉 말하자면 사람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가 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다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당연히 조상님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같이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는 거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아니라 낳아줄 수 있는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래서 8월 추석을 지내는 그 뜻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고, 불 끄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밟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8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곡식을, 밥을 지어서 농든 떡을 해서 농든 무엇을 해서 농든, 일체제물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 만 중생과 더불어 같이 지수화풍,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 데 통틀어서 마음으로 깊이 그 감사함의 은혜를 감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고 하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으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해야 할 텐데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당장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는 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밟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마시는 것이 그렇게 감사함을 느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낳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일체 만물을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상상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 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함을 모르니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된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려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공공하니 거기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니 내가 했더니 내가 말했더니, 그러면서 망한 거는 타의에서 망하게 했다는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됐다는니, 이러한 문제 등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풀벌레 하나까지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치가 거기에 있으니 조상님들은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추석을 맞아 내 마음을 돌 아나게 밝히는 뜻을 세워 내 속에 함께 하고 있는 만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 스님, 저는 경수에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도 꿈이었는데, 꿈이 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서도 똑같이 그 물에 뛰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어놓은 의식들에 의해서 한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내가 과연 도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만약 이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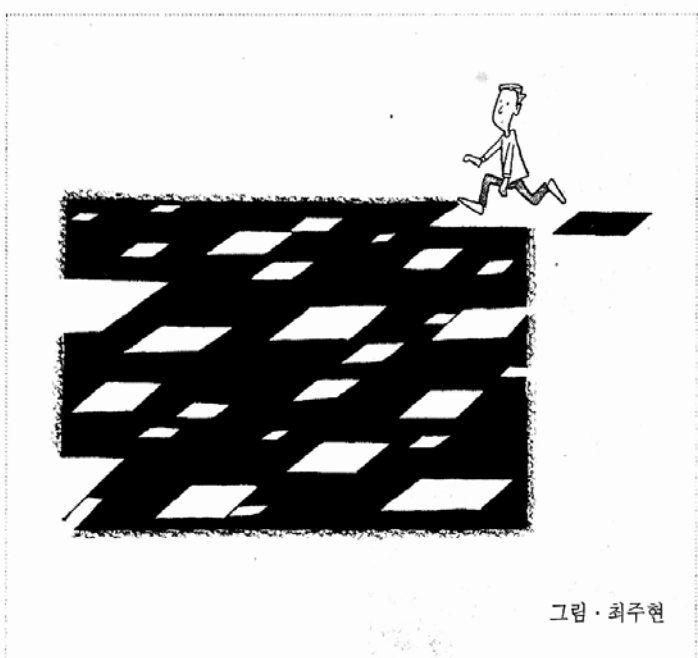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 나의 근본에 돌 아나게 놓고 잘나 생활로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을 벗는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 그 물에 뛰어 들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있다는 생각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한 것도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없다는 걸 알면 두려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말입니다. 골도 없고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구경지를 이루어야지 죽고 나서는 공부를 못합니다. 부딪침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나무니 돌이니 사람들이니 나쁜 거니 좋은 거니 다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까 공

부를 하지만, 그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고 나서는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대승이 되고 살아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깨달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할나할나 화해서 한 발 디디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디디면 한 발 없어지고, 이러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거 하면 저거 해야 하고 이럴 뿐이니, 마치 바람 같이 그냥 자꾸 한데로 돌아 돌아와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맨날 했던 거 되

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곤 싸고 먹곤 싸고, 그렇게 되풀이하잖아요? 그러고 자고 깨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나 남아 있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니까,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는 말도 붙일 게 없는 거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붙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에서 활나생활을 해라 이런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육신이 온 것만 해도, 사람으로 온 것만 해도 참, 불행 중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걸 한탄 말고 열심히 닦으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닦아라.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닦을 게 있어서 닦으라는 걸 알지 말고요. 물건이 없는데 닦을 게 있어서 먼지 닦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육조스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뚜렷하게 있어서 지금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환상(幻想)으로 지금 상대에 부딪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 뜻을 알아야 물뿐만 아니라 불구멍이, 지옥고도 넘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가는 발자국마다 지옥고다 다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만 아니라 인연된 모든 이들을 구해서 다 천도시킬 수도 있고 밝게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 돌 아나게 일임하고 잘나 생활로 살아가라는 거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고 괜히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인생이 길다고 하지만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남한테 해롭게 하지 말고 폭넓고 지혜롭게 마음을 쓰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반항적인 청소년 앞날 걱정돼

문 고등학교 입시 과의선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거처다보니 느끼게 된 것인데, 청소년기의 성향이란 것이 어딘가 모르게 반항적이고 어른들의 말을 고리타분하다 하여 잘 듣지 않게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때 아이들을 보면 텔레비전에서 좀 우수한 사람이 나오거나 하면 사회에 대해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진 채 욕을 해대기도 하고 어찌다 같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머리가 커지니 이래라 저래라 해서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다 커버린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이 장래 이 사회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노파심에 알게 모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전부 자기 마음으로써 작용하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 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라만 내 자식이라고만 고정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잘못된 게 있으면 인의롭고 부드럽게 해서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말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의 중심에 다 맡겨 놓고 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 뿌리를 길러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야단치고 온통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가혹하게 만들고 이따하게 만들고, 또 똥똥이 안 나가도 마음이 벌써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고 이런다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더욱 더 가난을 가져오게 만들고, 병고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작스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제대로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말입니다.

사사로운 일이지만 내 어디 가다가 보니, 커피를 마시고도 커피잔을 아무데다가 그냥, 조금만 가면 쓰레기통에 넣을 것도 그것도 하지 않고서 어는 귀뚜이애다 끼워 놓고, 차 타고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는 그냥 후각후각 버리고, 강릉 마시다가도 그냥 휘 던지고 가고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마음공부라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도의와 의리와 시간을 지키고, 부드러워야 하고 부드러운 행을 해야 하고, 말 앞세우는 것보다도 행동이 더 진실해야 하는 것이 마음공부의 실천행입니다. 실사 거지말을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거지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익이고 거지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기성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익하게 안하고 맨날 해롭게 한다면 그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임이다.



주머니 속 대장경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인의 선사 모음집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101 - 교리·입문편

102 - 교리·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학편

501 - 문학·학술편

502 - 문학·학술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딸꼭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시이 후라도 공저, 김종근 편역, 86년형 242쪽 / 값 5500원

이재열 지음, 86년형 196쪽 / 값 4500원

조철 스님 편역, 86년형 176쪽 / 값 4000원

혜능 스님 역음, 86년형 330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興) 스님 옮김, 86년형 276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興) 스님 옮김, 86년형 276쪽 / 값 5500원

한철조 지음, 86년형 336쪽 / 값 6000원

이종선 지음, 86년형 282쪽 /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86년형 196쪽 / 값 4500원

김종서 지음, 86년형 182쪽 / 값 4500원